

2024년 10월

월간 KOCHAM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유건영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4년 10월 17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1. 코참 활동

2.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한국 문화세미나 개최

광물박람회 참석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한국 문화세미나 개최 (9/12)



코참은 9월 12일(목) 오후 7시부터 Piracicaba에 위치한 SIMESPI 강당에서 한국 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Piracicaba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제철 및 주조 산업 협회인 SIMESPI와 공동 개최했으며,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브라질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임윤정 교수가 2시간 가까이 발표를 진행했다. 임윤정 교수는 한국 문화, 또는 사내 문화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농경생활과 유교적 가치관을 꼽으며 브라질 문화와의 차이를 설명해 나갔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발표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코참 활동

한국 문화세미나 개최

광물박람회 참석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광물박람회 참석 (9/10)



유건영 코참 회장은 9월 10일(화)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벨루 오리존치 시에 위치한 EXPOMINAS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물박람회에 참석했다.

브라질 광업협회(IBRAM)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브라질 광물청을 비롯한 브라질 유관기관 인사 및 브라질 기업인, 그리고 주브라질대사관 및 KOTRA 등 유관기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의 한국 기업인들이 참가했다.

유건영 회장은 브라질 진출기업 ESG 세미나 및 네트워킹 오찬 자리에서 브라질 기관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브 기업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참 활동

공관 및 교민 소식

한인단체 한가위 맞이 행사 개최

문화원, 진주 실크등 전시회 개최

제25회 한인 미술협회 전시회 개막

한인성당, 성 김대건 축제 개최

공관 및 교민 소식

한인단체 한가위 맞이 다양한 행사 개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아 한인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브라질지회(회장 이인숙)와 브라질한인회(회장 김범진)는 제8차 '사랑의 바구니' 나눔행사를 공동개최했다. 9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봉혜피로 소재 한인회 사무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20가정에게 각각 상품권(2백헤알)과 준비한 떡을 함께 전달했다.

대한노인회 브라질지회(회장 조복자)는 17일(화) 순복음쌍파울로교회에서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효성 브라질 법인과 더불어 소액 후원자들까지 행사를 후원하며 어르신들께 풍성한 명절 선물을 드렸다. (출처: 한인투데이, 좋은아침)

문화원, 진주 실크등 전시회 개최



주브라질한국문화원(원장 김철홍)은 9월 3일(화)부터 20일(금)까지 리우데자네이루의 Casa G20에서 열린 '한국의 빛-진주 실크등' 특별 전시를 개최했다.

Casa G20는 오는 11월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마련된 문화 외교 공간으로, 이파네마 해변 인근에 위치해 전 세계 방문객들과 현지인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밤' 행사에서 방문객들은 진주산 실크로 만든 다채로운 등불로 꾸며진 터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으며, 터널 끝에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한복 체험관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리우 주와 니테로이 시 주민들 및 해외 관광객, 다수의 저명인사들도 참석했다. (출처: 뉴스훅)

코참 활동

공관 및 교민 소식

한인단체 한가위 맞이 행사 개최

문화원, 진주 실크등 전시회 개최

제25회 한인 미술협회 전시회 개막

한인성당, 성 김대건 축제 개최

공관 및 교민 소식

제25회 한인 미술협회 전시회 개막



브라질 한인 미술협회(회장 김승호)가 주최한 '제25회 미술협회 전시회'가 9월 21일(토) 저녁 상파울루 시내 상파울루 문화센터(R. Vergueiro 1000, Liberdade)에서 막을 올렸다. 김승호 회장을 비롯해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은 '지구환경의 평화'를 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43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전시회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989년에 창립된 브라질 한인 미술협회는 브라질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미술 단체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브라질 현지인들과의 문화 교류 및 예술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인사회와 브라질이 예술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좋은아침)

브라질 성 김대건 한인성당, 첫 성 김대건 축제 성황리 개최



천주교 브라질 성 김대건 한인성당(주임신부 최상순 비오)은 9월 22일(일), 첫 성 김대건 축제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신자 700여 명을 포함하여 총 1,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축제는 한국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다수의 브라질 인들도 참가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맞아 준비된 이번 축제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순교 신앙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축제는 통합미사를 시작으로, 성당 투어, 먹거리, 문화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녹두전, 불고기 컵밥, 떡볶이 등 한국 대표 음식뿐만 아니라 캘리그래피, 한복 체험, 전통 매듭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출처: 좋은아침)